

주제발표에서는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질병·부상, 출산·육아 지원, 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은 기존 법률 및 지원제도와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발굴과 복합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의 입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제안했다.

이어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지회장, ▲한완희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안원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성혜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사회보험 지원과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채무조정, 폐업·재기지원 등을 연계한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경영자이면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인 만큼, 이제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개인의 삶까지 정책의 영역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복지법」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계와 기본적인 복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별첨 : 1.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 포스터
2.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 현장사진

별첨 : 1.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 포스터

사각지대를 넘어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그린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



일시 | 2026년 8월 26일(수) 13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회 | 김한나 부위원장

주제발표

발제 1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과 과제
-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

발제 2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의
입법 방향과 주요 쟁점
-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

종합토론

좌 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1. 강혁현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지회장

토론 2. 함완희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토론 3. 안원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과장

토론 4.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토론 5. 윤성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주최 | 국회의원 백혜련, 장철민, 김원이, 김의겸, 권향엽, 박희승, 서미화, 송재봉, 정진욱, 허성무, 전은수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주관 | KFME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정책학회

후원 | 중소벤처기업부